

2018. 3. 23 | 제 679 호 |

자원개발 정책 관련 논의와 대응

• 이원학(연구위원)

2018. 3. 23 | 제 679 호 |

자원개발 정책 관련 논의와 대응

• 이원학(연구위원)

2016년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에 이어 정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정책이 강원도 폐광지역에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 2년 전에는 가행광산의 폐업을 통한 석탄산업의 축소였다. 이번에는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이고, 폐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기관들이다. 정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17.11.29~)의 핵심 의견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2008년 0.5조 원에서 2016년 기준 5.2조 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여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TF가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민이 요구된다. 첫째는 모두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한 기관의 부실을 다른 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해결한 이후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합하여 시너지를 높인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원개발이라는 고유한 관점에서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와 같은 기관과 성격이 유사하다. 둘째로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된다면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다. 이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강원랜드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자원안보라는 개념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부터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여 안정적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었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더 많은 광물자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협력사업 중 하나는 광물자원일 것이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통폐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의 사업 영역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물론 폐광지역과 국가의 자원안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대해 본다.

I.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 방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 배경

-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각 부문별 기능 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16. 06. 14)」 수립 이후 꾸준히 에너지·자원 분야 공공기관의 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사례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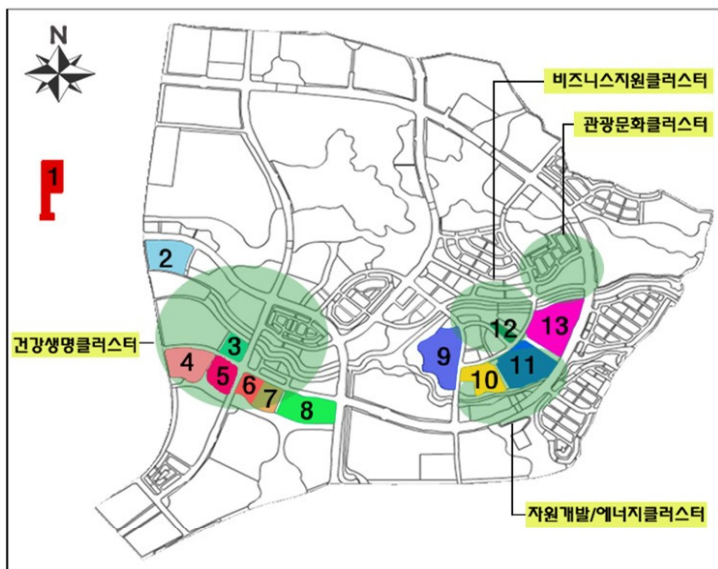
■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주요 이슈

- 2008년부터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석유공사의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대형화시킨 후,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였음
 - 2016년 기준 부채는 한국광물자원공사 5조 2천억 원, 한국석유공사 17조 9천억 원, 한국가스공사 29조 3천억 원 수준
 - 현재 석유, 가스, 석탄, 광물 등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 진행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 급증에 따라 부채 상환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임으로써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의 위험이 커지게 됨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불레오, 암바토비 광산 등에 투자하였고, 이후 가격하락 및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
 - 부채는 '08년 5,000억 원에서 '16년 5조 2,000억 원으로 급증하여, 부채 비율을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임
 - 기존 2조 원인 자본금을 1조 원 추가 지원하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2017.12.29)된 바 있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의 재투자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TF는 향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 하였음. 여기서 통합 유관기관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광해관리 공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II. 강원도 내 에너지 공공기관 현황과 주요 이슈

-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3,612천㎡)에는 총 13개 공공기관(건강생명, 관광문화, 비즈니스 지원, 자원개발)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자원개발기능군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가 포함)
-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폐합은 국가기관이지만, 폐광지역과 혁신도시가 위치하는 원주는 물론 강원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1 산림항공본부
 이천인원: 69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145,696㎡
 - 연면적: 13,381㎡(지하1, 지상3)
 주요 기능: 산불방지, 항공명예, 재난인명 구조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천인원: 145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21,782㎡
 - 연면적: 11,464㎡(지하1, 지상4)
 주요 기능: 범죄수사의 과학적 연구(광경, 무전 등)

3 대한석탄공사
 이천인원: 105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4,500㎡
 - 연면적: 6,126㎡(지하1, 지상6)
 주요 기능: 석탄광산의 운영, 개발, 기술연구 조사, 무연탄의 수급안정관리

4 도로교통공단
 이천인원: 319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20,154㎡
 - 연면적: 21,279㎡(지상12)
 주요 기능: 교통안전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

5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천인원: 156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12,276㎡
 - 연면적: 9,327㎡
 주요 기능: 공원관리사업 및 국가사무 대행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천인원: 116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4,919㎡
 - 연면적: 6,779㎡(지하1, 지상6)
 주요 기능: 국가유공자 의료 및 복지서비스

7 대한적십자사
 이천인원: 139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13,465㎡
 - 연면적: 9,226㎡(지상9)
 주요 기능: 보건의료, 국제협력, 혈액사업 등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천인원: 1,088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23,140㎡
 - 연면적: 61,469㎡(지하2, 지상27)
 주요 기능: 요양 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인원: 1,192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30,539㎡
 - 연면적: 38,388㎡(지하2, 지상27)
 주요 기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10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천인원: 174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19,307㎡
 - 연면적: 13,706㎡(지하1, 지상10)
 주요 기능: 광해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폐광 지역 진흥사업, 석연탄사업지원

11 한국관광공사
 이천인원: 462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30,536㎡
 - 연면적: 31,131㎡(지하2, 지상14)
 주요 기능: 관광진흥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천인원: 77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3,875㎡
 - 연면적: 4,853㎡
 주요 기능: 지방행정, 지역발전 등 정책연구

13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천인원: 550명
 시설규모- 부지면적: 32,600㎡
 - 연면적: 33,314㎡(지하2, 지상15)
 주요 기능: 국내·외 광물자원 탐사 및 직접 개발, 광물자원의 안정적공급기반 구축 등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분포도〉

1) 이후부터는 광해공단, 광물공사로 표기하겠음

■ 한국광물자원공사 - '16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산정 불가

- 초기 「대한광업진흥공사법(법률 제1935호)」에 의거하여 1967년 6월 5일에 설립되었고,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명칭 변경
 - 광물공사의 소유 구조는 정부가 99.86%, 한국산업은행이 0.14%를 보유
 - ※ 정관 제2조(목적)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 정관 제29조(업무)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성 평가·광물시험, 광산물가공자금·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 광산물 비축, 광산 경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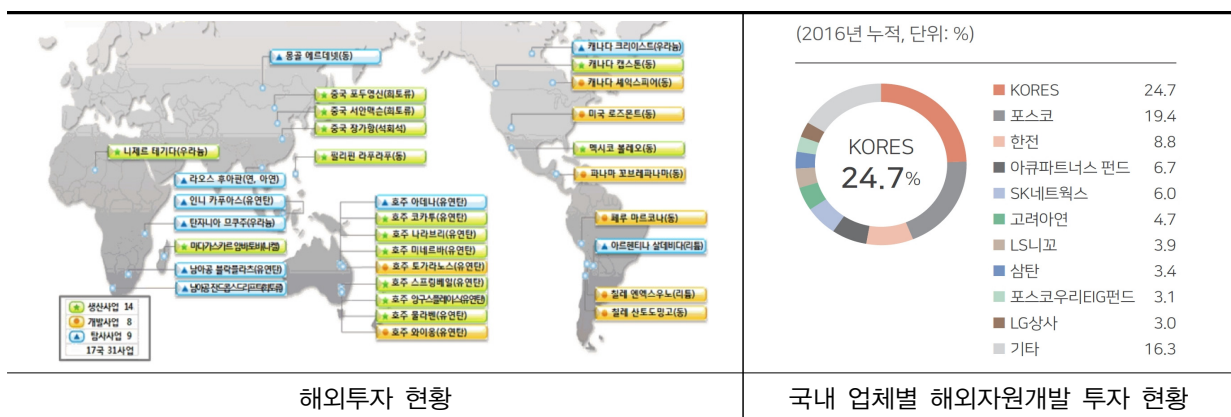
- 2008년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이 본회의를 통과(2008.12.3)하면서 국내 광업지원에서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중심 기관으로 개편
 -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려, 자원개발 지원 사업 중심에서 투자 중심 기관으로 업무 영역 확장
 - 또한 재원조달 다각화 차원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채발행 근거 마련

- 광물공사는 현재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완료하였고, 2016년 말 기준 52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개발·지원, 북한자원개발 지원, R&D 기술 개발·보급, 광물비축사업 등으로서, 우리나라 광물자원 산업의 육성을 통해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추진하는 핵심 국가기관임



<한국광물자원공사 조직도 및 주요 사업>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2016년 기준 21개국 47개 사업에 진출하여 이 중 17개국 32개 사업을 수행하였음(15개 사업은 종료). 누적 투자액은 현재 4조 8,65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광물개발 투자비의 24.7%를 차지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누적 회수액은 0.5조 원으로 총 투자액 5.2조 원 대비 10%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은 19.4억 불로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²⁾



자료 : 2016 지속가능보고서(광물자원공사, 2017)

〈광물공사의 해외자원투자 현황 및 국내 업체별 비교〉

〈광물공사의 주요 해외자원 개발사업 문제점〉

구분	주요 내용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 긴박한 운영권 인수로 사전 검토 부족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사업	• 자원시장 악화로 사업추진 보류 결정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	• 투자비 증액 및 운영사 과도한 금융지원
중국 포두영신 희토류 사업	• 공장건설 지연에 생산개시 시점 연기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유연탄 사업	• 산림훼손 허가취득 지연에 경제성 악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2016년 기준 자산 4조 3,658억 원, 부채 5조 2,0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산출 불가능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남(부채비율 2015년 6,905% 기록). 최근 해외자원의 가격 하락 및 해외보유자산 가치·수익 급감에 따른 부채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

2)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2018.3.5.일자 보도자료

〈광물공사 재무상황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자산	11,360	23,963	36,247	58,520	43,658
부채	5,234	14,830	22,825	40,202	52,066
자본	6,126	9,133	13,422	18,318	-8,408
부채비율(%)	85%	162%	170%	219%	자본잠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2017년 12월 법정자본금 증액과 관련하여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광물공사는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 등 2018년에 총 7,403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고, 신규로 3,129억 원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³⁾으로서 유동성 위험이 계속되고 있음

〈광물공사 금융부채 만기 도래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본사	3,528	7,403	2,492	7,355	11,843	7,896	4,960	45,477
자회사	0	0	7,118	0	0	0	0	7,118
합계	3,528	7,403	9,610	7,355	11,843	7,896	4,960	52,59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이러한 문제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광물비축·광업지원 기능 조정 및 통폐합 방안⁴⁾을 제시
 -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단계적 축소 및 폐지 검토
 -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유관기관과의 통합 검토
 - (광물자원공사) 2020년까지 인력 감축 및 신규채용 중단, 국내조직(△17%) 및 해외사무소 축소(’15년 11개 → ’17년 3개)
 - 향후 정부는 2018년 안으로 「광물공사법」 폐지 및 「광해방지법」 개정을 통해 「(가칭)광업진흥공사법」을 새로 제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TF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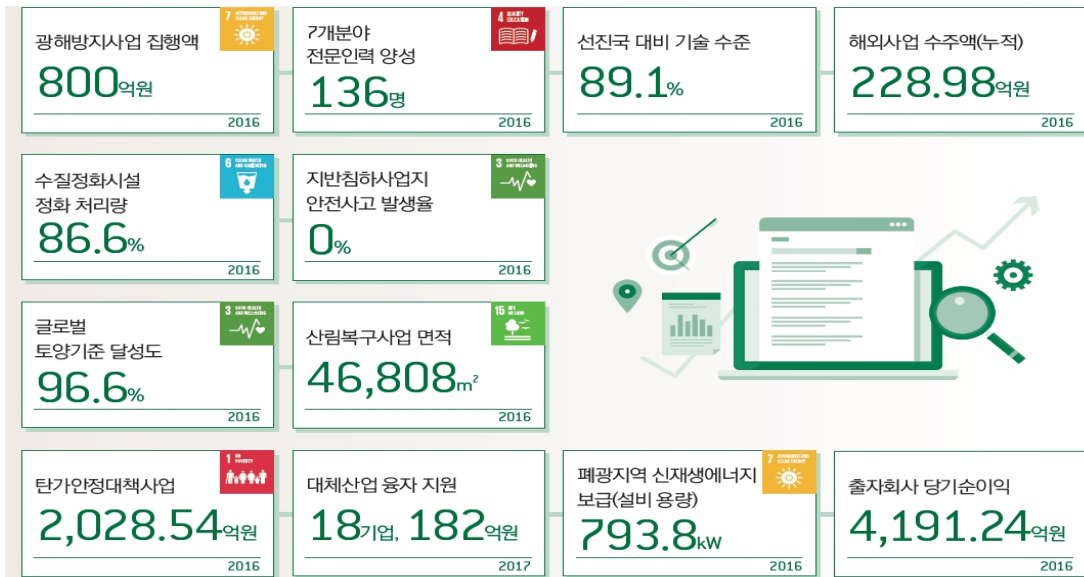
4) 기획재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2016.6.14. 일자 보도자료

■ 한국광해관리공단 - 부채비율 25% 수준의 튼튼한 재무구조 유지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초기 「석탄산업법」에 의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1987년 4월 3일에 설립되었고, 2008년 6월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변경
 - ※ 정관 제1조(목적)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산업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산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정관 제4조(업무)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석탄산업 합리화의 추진, 석탄산업 지원사업,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보유 부동산 임대업, 해외광해방지사업, 해외 연탄사업 운영 및 기술지원 사업, 광업(광해, 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광해관리공단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고, 3본부, 1원, 1센터, 5지사 체제를 갖추고, 2017년 기준 232명이 근무하고 있음
 - 우리나라 유일의 광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광산개발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자연환경을 복구(광해방지사업)하고 위축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사업(대체 산업융자지원, 출자회사 지원·관리)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사업(석·연탄 지원사업), 해외광해방지사업 등 폐광지역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는 정부기관임

〈광해공단 주요 사업〉

구분	주요 내용
광해방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개발 과정과 폐광 이후 2차 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광해를 분석·예방하고 제거하는 사업 • 폐석·광물찌꺼기 등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오염토양복원, 수질개선, 지반침하방지 등 광해 복구로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고자 실시
지역진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 대체산업융자지원과 폐광지역개발사업, 출자회사 지원·관리 등을 실시
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결형 광해방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고도화된 기술을 확보하고, 광해방지사업 완료지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 한국형 광해방지기술의 성공적 정착 및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적인 광해방지기술 중심국 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사업을 실시
석·연탄산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실시 • 폐광대책비 지원 및 석·연탄품질검사,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수행
해외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해관리를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진 •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자료 :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한국광해관리공단, 2017)

〈광해공단 주요 성과〉

- 광해공단은 (주)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로서, 강원랜드 카지노 수익금을 기반으로 (주)문경레저타운, (주)블랙밸리 C.C, (주)동강시스타 등 6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강원랜드의 지분(36.2%)을 최다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강원랜드의 배당금 (2016년 배당금 768억 원 규모)을 다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재투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광해공단 출자회사 현황〉

(단위 : %)

법인명	설립일	주소	주요 사업	지분율
(주)강원랜드	1998.06.29.	강원도 정선군	카지노, 호텔, 스키장, 콘도	36.27%
(주)블랙밸리C.C	2004.08.13.	강원도 삼척시	골프장	11.03%
(주)동강시스타	2006.05.15.	강원도 영월군	골프장, 콘도, 스파	24.23%
(주)문경레저타운	2003.02.25.	경북 문경시	골프장, 콘도	36.36%
(주)대천리조트	2007.12.26.	충남 보령시	골프장, 콘도, 레일바이크	38.10%
(주)바리오화순	2012.01.06.	전남 화순군	직업테마파크, 펜션	38.17%

자료 :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한국광해관리공단, 2017)

- 2016년 기준 광해공단은 당기순이익 910억 원, 부채 3,078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약 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비교적 튼튼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Ⅲ.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과 폐광지역

- 광물공사의 타 기관 통폐합에 앞서, 부실자산 매각 및 부채 상황을 확실히 처리하여 합병하는 기관(광해공단)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광해공단과 통합할 경우 2017년 가결산 기준으로 예상되는 부채 총액은 9,768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 전망
 - ※ 2018년 예상 자본 : △9,768억 원(자본금 1,280억 원, △11,048 당기순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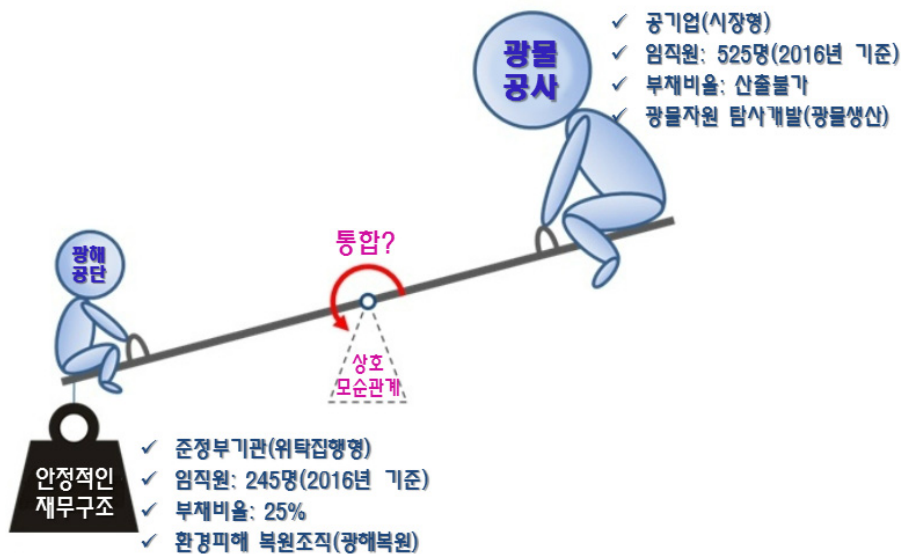
〈광물공-광해공 통합시 2018년 재무구조 예상 시나리오〉

(단위 : 억 원)

구 분	광해공단	광물공사	통합시(2018년)
자 산	16,003	44,465	60,468
부 채	3,245	55,943	59,188
자 본	12,758	△11,475	1,280

자료 : 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

- 이질적인 사업 분야(광물자원의 사전 개발과 사후 복구)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두 기관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음



〈광물공-광해공의 통합에 대한 모순관계〉

- 2025년 폐특법 종료를 앞두고, 광해공단은 폐광지역의 마지막 경제적 보루이기 때문에 이번 광물공사와의 통합은 강원랜드의 부실로 연계되어 폐광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광물공사의 부채로 인해 ‘연쇄 충격’ 및 ‘동반 파산’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여기에 폐광지역은 광해공단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업(폐광지역 경제진흥 및 복지 사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2025년 폐특법 종료 시에도 광물공사의 부채가 여전하다면, 이들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광해공단은 강원랜드의 유보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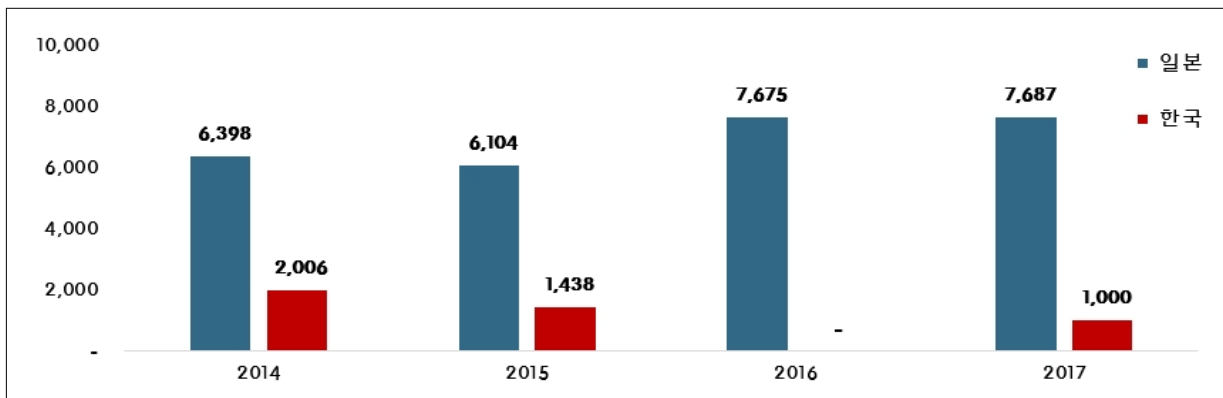
- 정리하면,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설립목적과 사업영업’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광물공사의 단기적인 위기 모면을 위한 광해공단의 통합은 두 기관의 동반 부실, 폐광지역 악영향, 국가의 자원분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정부는 단순히 두 기관의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향후 폐광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임

IV. 국가 광물자원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 국가 산업을 위한 자원의 자주개발률 확보 필요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원의 자주개발률(자원개발률)은 석유·가스의 경우 14.4%(일본 24.7%), 유연탄·동·철광 등 전략광물의 경우 32.1%(일본 60%)로 현재도 매우 낮은 상황
- 국가의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 68억 달러보다 일본이 13.7배(935억 달러) 많은 상황. 정부예산 6배, 정책금융 지원 규모 10배 수준
- 해외자원개발의 축소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에너지의 자주개발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등)으로 정책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 : 서울경제, ‘자원개발, “존버”도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원료’ 경쟁 방관하는 韓’, 2018.3.10

〈한일 해외자원개발 예산 연도별 추이(억 원)〉

■ 에너지자원 안보 실현을 위한 광물공사의 사업 방향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 특수성이 있음.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 안보 및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 분야임
 - 탐사(5년 내외 소요) → 개발(5년 내외) → 생산(20년 이상) → 유통(20년 이상)

⇒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원, 에너지 등은 공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대표적일 것임



자료 : 2016 지속가능보고서(광물자원공사, 2017)

〈광물공사의 자원개발 과정〉

- 광물공사의 통폐합보다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공기관으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함. 직접투자보다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인력, 연구개발, 출자 등의 형태로 사업 형태로 변모 필요
- 일본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합병으로 설립된 ‘Inpex(일본국제석유개발주식회사)’ 등 자원개발 전문기업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오히려 해외자원 개발투자 예산을 증액하고 있음. 최근에는 구리, 아연 등의 광물자원 분야 사업도 확대 추세
 - 일본은 이들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 부분에서는 투자금의 상향 조정(기존 50% → 70%)⁵⁾ 및 자원에너지 종합보험을 통한 리스크 보전 등의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 INPEX 지분 구조 : 경제산업성 18.94%, 금융기관 15.22%, 법인 19.98%, 외국인 주주 46.76%

5) 강천구, ‘자원두고 벌이는 지구촌의 총성없는 전쟁’, 시사저널, 2018.1.11.

■ 남북통일 및 북방경제 시대 대비를 위한 자원개발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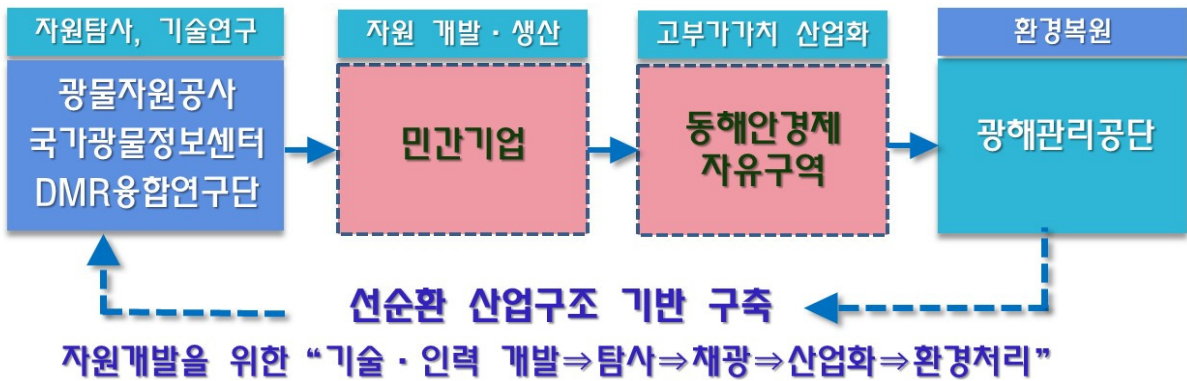
- 광물공사의 자원개발사업 중 1994년부터 시작한 ‘북한자원개발부문’은 최초 남북 자원협력사업으로서, 북한 정춘 흑연광산 합작개발사업 등의 광산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과 북한 유망광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3년 정춘 흑연광산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2010년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5.24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 동결 및 광물공사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정춘 흑연광산의 광물 생산에 차질을 가져옴
 - ※ 당시 광물공사는 665만 달러(한화 71억 원 규모) 투자액의 2억 8천만 원을 회수함
-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지는 남북협력 및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광물자원 정보 제공, 북한 광산개발을 위한 실무 지원, 투자여건 파악 등 기존 광물공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2016년 기준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3,200조 원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230조 원)의 14배 수준
 - 광물공사 자원개발분야 폐지가 아닌, 전문기관으로서 인력·기술 확보 등이 요구됨



자료 : DMR 융합연구단(<http://dmr.kigam.re.kr>)

〈남북자원개발 추진 배경 및 방향〉

- 강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개발기관들이 연계하여 성장동력 산업으로 자원개발 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북방경제 강화를 위한 9-Bridge 정책과도 연계하여 오히려 우리의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광물공사-광해공단의 역할 및 발전방향〉

* 이 정책메모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수정될 수 있습니다.